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제2차 둘째 해 | 성체 중심의 지역 복음화 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별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훈일 세례자 요한 신부 /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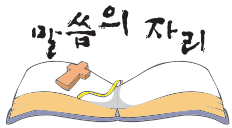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집니다. 별 하나 하나에는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고, 별 하나 하나에는 전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 '나의 별'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별과 나눈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꿈을 꾸고 경외심을 가집니다. 별은 낭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들과 사막을 건너 교역을 하는 장사꾼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적 천문우주론이 발전하기 전에는 '별의 움직임과 사건이 미래를 표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왕조들은 일찍부터 별을 관측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의 관측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 인물들입니다. 아득히 먼 우주 공간으로부터 큰 별을 발견한 이들은 그 별빛의 의미를 찾아서 먼 길을 왔고, 마침내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별은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헤로데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비추어졌습니다. 이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교리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리로도 알았고, 별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 체험적인 신

앙도 없고, 구세주를 고대하는 불타는 마음도 없고, 교리를 자기의 삶의 방편으로 삼은 직업화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보다 현세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상의 권력자 헤로데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세속에서는 지상의 왕과 부와 권력을 나누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헤로데 왕은 더한 음모를 가집니다. '현세의 권력을 빼앗긴다면 하느님과도 싸워 이기겠다'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하느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설사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나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인물이 헤로데 왕인 것입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숨긴 채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무산시키려 합니다. 이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별빛은 번거롭고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별빛은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임금님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만, 하느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성모님과 순박한 목동들과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별을 따랐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이 드러났습니다. 무한한 희망과 경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별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저 별은 별일뿐이고, 별을 바라본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마음 속의 별을 잃어버렸듯이 진지함과 경외감을 상실하고, 물질과 쾌락이 주는 세속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채 희망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 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위계승 설화(2사무 9장-1열왕 2장) ①

글/ 이종섭 마태오 신부 / 오송 본당 주임

사무엘기 상하권 제5부(2사무 9-20장과 1열왕 1-2장)는 다윗의 왕위계승에 얽힌 왕궁설화요 조정실록(朝廷實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는 사무엘기 하권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열왕기 상권 2장 솔로몬의 왕위계승까지 연결된다. 사무엘기 하권 9-20장과 열왕기 상권 1-2장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빼어난 산문 가운데 하나다. 이 왕위계승사는 그 경위를 직접 눈으로 본 어느 증인에 의해 쓰였는데, 그 시기는 솔로몬 통치(기원전 970-933년) 전반기, 곧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되었다. 기원전 10세기 중엽에는 현재의 형태에 가까운 고정된 형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윗 왕위계승 설화는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된다(2사무 9장). 사울의 아들 요나탄과 다윗의 우정은 사무엘기 상권에 잘 묘사되었다. 요나탄이 아버지를 거역해가면서도 다윗을 감싸주고 끝까지 우정을 지킨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2사무 9,1).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요나탄의 아들 ‘므피보셋’이었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 다윗은 므피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신과 한 식탁에서 먹도록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2사무 9,7).

이것은 유일한 예외다. 사무엘기 하권 5장 6-8절을 보

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소경과 절름발이에 한이 맺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를 허락했는데, 그것이 므피보셋의 경우였다.

사무엘기 상권 9장이 비록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지만 다윗 왕위계승 설화에 속한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려면 사울의 후손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했다. 요나탄의 아들 므피보셋은 왕위를 주장할 위협적 인물은 못되지만, 유사시에는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2사무 16,3 참조). 다윗이 므피보셋에게 베푼 호의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독자는 파악해야 한다. 다윗은 므피보셋을 자신의 감시 아래 두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유화책을 쓰려는 의도였다.

사무엘기 하권 9-12장에는 솔로몬이 탄생한 경위가 아주 길고 자세히 언급되었다. 다윗 왕위계승 설화에서 결정적인 사건의 발단은 사무엘기 하권 11장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장교 우리야의 아내 ‘밋 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밋 세바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솔로몬’이다. 다윗은 완전범죄를 꾀했다. 충성스런 신하 우리야를 적군의 손을 빌어 죽였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 나탄 예언자가 개입해 다윗의 죄악을 고발했다. 다윗 왕위 계승사에서 예언자가 개입하는 일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우리야의 아내 밋 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훗날 그가 결국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되었다.

●●● 묵상주제

인간의 죄악은 하느님의 구원역사를 막지 못한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느님의 구원역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고맙게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역사가 더 잘 이루어진다. 만일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후손에서 구세주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와 잘못을 선으로 바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성 베드로 다미아니

베드로 다미아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35년 수도원에 입회하여 베네딕도회 수도자로서 은수생활을 시작하였다. 수도자들에게 행한 그의 신학적 가르침, 그의 박학함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소문이 나서 다른 수도원에서도 강론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고, 성경과 교부학 연구에 전념하면서 은수자로 생활하던 중 1043년에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 그 후 성 베네딕도와 성 로무알도의 이상을 결합시킨, ‘은수자적이면서 공동체적인 규칙’에 따라 수도 생활을 개혁시켰으며, 다섯 개의 은둔소를 더 세웠다.

1057년 베네딕도회 수도자로서 몬테 카시노 수도원의

아빠스였다가 교황이 된 스테파노 9세는 본인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다미아니를 오스티아의 주교이자 추기경으로 서임하였고, 교회개혁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평신도들의 성직매수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훌륭한 강론을 통해 신자들을 자신의 개혁의향으로 이끄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베드로 다미아니는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지원을 받아 교회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번 대립교황들에게 대항하였으며, 교회의 참석, 밀라노, 독일과 프랑스 나라들에 대한 외교 활동, 개혁을 위한 저술 등의 노력으로 교회의 공적인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교회의 순수성과 권리를 회복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또한 매일의 영성체를 영적양식으로 삼게 하여, 신자들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소시키고, 자신의 생활모범으로 사람들을 겸손과 희생, 속죄와 참회의 길로 인도하였다.

〈다음에 계속〉

동방박사들의 경배(부분)

1468-1470년경, 위고 반데르 고즈(Hugo Van der Goes, 1440-1482), 나무 패널에 유채, 전체 147 x 242cm, 베를린 회화 박물관, 독일



작품해설/ 박혜원 소피아



고대 로마의 폐허가 연상되는 건물 내부에는 아기 예수님의 수난과 왕위를 암시하는 자주색의 드레스에 천상의 푸른 망토를 걸친 성모님이 무릎 위의 아기 예수님을 조용히 내려다 보고 있다.

천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는 화려한 붉은 복장 차림의 동방박사가 두 손 모아 경건히 경배를 드리고 있다. 마리아의 흰 두건과 예수님의 창백한 몸과 이를 받치고 있는 수건은 ‘예수님의 결백’과 ‘죽음의 수의’를 동시에 연상시킨다.

15세기 플랑드르의 위고 반데르 고즈는 북유럽, 이탈리아를 오가며 활동하다가 벨기에의 수도원에 입회한 화가이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밝고 화려한 색채, 휴머니즘과 과학정신, 그리고 북유럽의 응축된 내면화된 정신성의 표현과 극도의 사실적인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화면을 그려낸 대가이다

이제 되었다, 일어나 가자.

글 서철 바오로 신부 / 선교사목국장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일어나 가자”(마르 14,34-42).』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루카 23,27-29).』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 때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셨습니다. 엄청난 공포와 번민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듯 통절한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땀이 흘러내립니다. 온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땀 안에서 당신의 마지막 의지를 드러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온 몸으로 마지막까지 토해 냈을 때에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때에야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몸과 마음으로 의연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씨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

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 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배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 주십시오”(민수 11,10-15).』

끝까지 씨름해서 얻어지는 화해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 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은 다음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었다(창세 32,25-31).』



그림 _ 조상민 M.콜베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예수님을 경배함으로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알려진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이사 60,1).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밝고 따뜻한 웃음을 머금고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선물을 안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정겨움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움을 닮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벽차오르리라’ (이사 60,5).

서로를 생각하고 보듬으며 함께하려는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 순간들을 참아내며 벽돌처럼 쌓아올린 보람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뭉땅 내어놓기도 하고, 배워 익힌 재능으로 불우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북돋우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성탄 전날 오후에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취미활동을 통해 익힌 크로마 하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연주복을 입고 무대를 채운 저희들을 향한 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봉사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문득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역 장기자랑을 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성탄 전주 토요일에 각 구역에서 준비한 다양한 춤과 노래 연극은 박수갈채와 웃음으로 범벅된 ‘성탄 축하선물’이었습니다. 시작 전, 울동을 익히시려 벽을 향해

서서 연습을 반복하시던 원로사제의 뒷모습은 행사를 부담스러워했던 제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며, 가책과 감동으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신부님 두 분과 평협회장, 부회장, 신학생이 한 팀이 되어 펼친 울동은 전 신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앙코르 박수에 재공연을 하였습니다. 총구 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하신 주임 신부님의 선물은 우리 모두의 본보기였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성모님과 함께 계신 아기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고 합니다.

왕이며 사제이며 죽음의 상징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로 이웃을 위한 옳고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며 분에 넘치는 사랑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합니다.


좋은신 하느님, 당신의 은총과 사랑이 저희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소서.



‘기쁜 소식’, 심순화 카타리나 작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1.12.주일.14:00	서울본원	02-3706-3233
성가소비녀회	1.12.주일.14:00	인천관구본원	010-5476-5801




청주성모병원, 도내 최초로 PET-CIT를 통한 파킨슨병 조기진단검사 실시

청주성모병원은 도내 최초로 PET-CIT를 통한 파킨슨병 조기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파킨슨병은 노인성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다 운동장애, 떨림, 경직 등 신체움직임의 문제와 무기력감, 어지럼증, 우울 등의 비운동증상이 나타난다.

PET-CIT는 최신 영상 기법으로 진단율과 정확도가 매우 높아 병의 진행정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는 지난 1월 1일 제47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형제애, 평화의 바탕이며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교황 성하는 '형제애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며, 형제애의 기초를 '하느님의 부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부성은 하느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인

격적 사랑을 말한다. 또, 교황 성하는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해 생기는 심각한 빈곤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관계를 재발견하고 증시할때만 극복된다'고 하며, 형제애의 원칙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담화문은 '모든 활동은 봉사의 자세를 특징으로 하여야 하며, 봉사는 평화를 이룩하는 형제의 혼'이라고 하였다.

교황 성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였다. 담화문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www.cdcj.or.kr)

세상 속의 청주교구

2014 공소회장단 연수

선교사목국은 오는 1월 7일(화)~8일(수) 교구 연수원에서 2014년도 공소회장단 연수를 실시한다. 공소회장단 연수는 공소회장, 부회장, 총무, 차기 공소지도자, 원하는 신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강의 및 조별토론, 동영상 감상,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가 봉헌된다.

- 일시 _ 1.7.화.14:00~8.수.13:00(파견미사 11:00)
- 장소 _ 교구 연수원
- 회비 _ 1인 3만원
- 문의 _ 210-1730 선교사목국

부제서품자 피정

- 일시 _ 1.6.월-12.주일 • 장소 _ 보은 예수수도회

사제서품자 피정

- 일시 _ 1.7.화-13.월 •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양업고등학교 신나는 겨울 캠프

- 일시 _ 1.16.목-18.토
- 장소 _ 양업고등학교 교내
- 대상 _ 중등부 1~2학년
- 문의 _ 260-5076, www.yangeob.hs.kr
- ※ 1.6~8까지 선착순 홈페이지 접수

제10기 포레사도 모집

- 대상 _ 2014년 고등부 1학년
- 양성피정 _ 2.14.금.14:00~16.주일.16:00
- 접수마감 _ 2.3.월.18:00(방문 혹은 우편)

제9기 포레사도 영어캠프

- 일시 _ 1.10.금-12.주일 •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 문의 _ 220-1705 청소년사목국

성서사도직 겨울 성서연수

- 일시 _ 창세기/2.10.월-11.화.10:00~16:30
탈출기/2.17.월-18.화.10:00~16:30
-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회비 _ 3만원
- 대상 _ 창세기, 탈출기 그룹공부 마친 성인 신자
- 준비물 _ 성경, 필기도구, 개인컵 • 마감 _ 2.3.월(당일 접수 불가)
- 문의 _ 210-1734, 010-6378-5217

독일휘슬러, 지멘스, 실리트

전기렌지, 냄비세트, 압력솥, 주방용품
봉명동 220-1 봉명초등학교 정문앞

연만성 사도요한 | 010-5490-4118 | 이영아 요한나 | 010-3498-7620

친환경 어린이 가구 벤키즈(청주청남점)

무독성 파우더 코팅 시스템(환경등급 superE0)
오븐에서 구워 만든가구-청남지구단지앞 200m

최용운 스테파노, 고현정 스테파니아 | 010-3315-0120 | 264-0502

이태리샵 귀금속 백화점

결혼예물전문점(공장직영, 도매, 고가매입)
충북선거관리위원회앞, 하북대 사거리

김운선 벨라도, 윤미숙 요한나 | 010-3456-3253 | 231-5878

예스평생교육원

국비지원교육(실업자/재직자/사업주)
직업상담사, 환경기능사, 청소년상담사

윤은순 에밀리아 | www.yesedu.or.kr | 상담 908-4284

안경 매니저(성안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57-4
지하상가 위 베스킨라빈스 맞은편

원장 김두안 베드로 | 223-9981 | 안전진 레지나 | 010-5095-8426

롯데리아 증평점

무료배달 홈서비스 1600-9999
단체주문환영(무료 캔콜라 증정)

오세연 율리아 | 836-2255

교구장 동정

공소회장단 연수 파견미사

일시 _ 1.8.수.11:00
장소 _ 교구 연수원

피정 및 교육

여성 제73차 꾸르실료

일시 _ 1.9.목-12.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성령쇄신봉사회 단기성령세미나

일시 _ 1.10.금-12.주일(선착순 100명)
장소 _ 초정 성령쇄신봉사회관
회비 _ 7만원. 문의 _ 213-9103
※일일대피정/1.6.월.10:30-17:00

삼성산 2박 3일 대피정(무료)

일시 _ 1.10.금.18:00-12.주일.15:00
장소 _ 삼성산 피정의 집
문의 _ 02-874-6346, 010-3310-8826

신임교사학교 동반자 교육

일시 _ 1.11.토.09: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카나 혼인강좌

일시 _ 1.12.주일.09:30-18:00
장소 _ 교구청

회비 _ 4만원 ※사전접수 필수

접수 _ 1.9.목까지 210-1737 가정사목국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_ 1.20-24, 1.24-26, 2.7-9
2.10-14, 2.17-25, 3.17-25

장소 _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_ 신자, 성직자, 수도자

문의 _ 031-946-2337, www.jesumaum.org

※이냐시오 1.20-24/에니어그램 1.25-26

제주 자연피정

일시 _ 2.18-21, 2.23-26, 2.28-3.2
3.9-12, 3.18-21, 3.26-29

문의 _ 02-773-1455 성 이시돌

회의 및 모임

물방울(다락방) 모임

일시 _ 1.6.월.10:30
장소 _ 사천동 성당

평협 월례모임

일시 _ 1.6.월.18:4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안내

성직자·수도자 고해성사

※1월은 없습니다.

예비신학생, 성소자를 위한 미사(한나회)

※1월은 없습니다

사제서품식 준비 연합 성가대 연습

일시 _ 1.6.월.15:00-17: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일정 변경)

일시 _ 1.9.목.14:00
장소 _ 교구청

사이버 성경학교 2014년 1학기 개강

대상 _ 성경에 관심있는 전 신자
접수 _ 2월 말까지 010-7249-7966
(cyberbible.casuwon.or.kr 참조)

모집

황간 루시유치원 교사 모집

자격 _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신입, 경력자 무관, 교사숙소 제공)
문의 _ 742-4014, 010-5530-4014

충북재활원 제2기 가족봉사단 모집

모집 _ 1-2월. 활동 _ 3-11월
문의 _ 262-7415~6 자원개발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회복지사 모집

프란치스코의 집 생생관리직원 모집

자격 _ 양손기능 ·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서류 _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타 _ 주5일제 40시간 근무
문의 _ 295-2514, 010-3359-6534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경평생교육원 교육생모집

과정 _ 학점은행제 자격증 · 학위 온라인 과정
일정 _ 1.9 개강,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문의 _ 1577-0361, www.cec.or.kr 접수

2014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모집

정시2차 모집 _ 1.11.토-23.목

학과안내 _ www.csj.ac.kr 참조

문의 _ 054-851-3021 입시홍보처

꽃동네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 모집

대상 _ 누구나(학력, 연령제한없음)
장소 _ 꽃동네 회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접수 _ 1.13까지(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7-10)
문의 _ 273-2097, 010-5115-8790

2014 대전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및

성요셉장례지도사교육원 모집

마감 _ 2.7.금.17:00
과정 _ 교리신학원, 교리교육, 전례음악원, 전례꽃잎이
성요셉장례지도사교육원(수강료납부/선착순)
접수비 _ 각 과정별 1만원(장례지도는 접수비 없음)
교부 _ www.dccatholic.ac.kr (공지 참조)
문의 _ 044-861-7201

통신(우편)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_ 만 18세 이상 평신도, 수도자(학력제한없음)
내용 _ 성경 및 신학 일반(그리스도론 등 26과목)
교부 및 접수 _ 2.7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 _ 02-745-8339, 02-747-8501~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ci.catholic.ac.kr(원서다운로드 가능)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입주예정자 모집

개요 _ 3월 입주, 총 264세대 실버타운
특징 _ 1,000병상 국제성모병원 함께 건립 운영
입주자를 위한 요양원 별도 운영
대상 _ 60세 이상 어르신 신앙공동체
내용 _ 매일미사와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천주교상장예식지원 등 웰다잉프로그램
홈페이지 _ www.marisstella.or.kr 참조
문의 _ 032-569-8500, 8600 마리스텔라

성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자격 _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2명)
서류 _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채용건강진단서
문의 _ 214-8501, 010-9407-2144

음성꽃동네 희망의 집 직원 모집

분야 _ 조리원, 생활재활교사
서류 _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문의 _ 879-0435, ksimin0435@hanmail.net

청주주보 상업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쪽출판사 Tel : 273-5000~2, Fax : 273-5003, e-mail : dewmok@hanmail.net

카톨릭병원 정형외과

“관절 및 척추질환 치료병원”
사직동 사거리 교보생명 맞은편

김태훈(레오) | 274-4401~2
김현석(아오스명)

민 안 과 의 원

라식 · 라섹수술, 20년, 김원장라섹
백내장, 쌍꺼풀, 특화수술 · 각종특수검사

원장 김병석(베드로) | 222-8080
원장 김소연(테레사) | 지하상가 중간 신호등 북쪽

해외 성지순례단 모집

2월 21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1일 420만원
3월 31일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5만원

가톨릭 여행사 | ☎ (02) 319-2533

김장젓갈 전문 · 강경 늘봄젓갈

바자회, 사회복지회, 각종 기금 상담환영
각종 새우젓, 액젓, 갈치액젓, 양념젓갈

대표 김형근 루카
010-7722-7711 | 041-745-7711

타시던 중고차, 최고가 매입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사고와 상관없이
좋은 가격에 구입합니다.(당일 명의 이전)

대표 이균상 알렉시오
선생님자동차매매상사 | 상담 010-6329-9282

산남동 예진보석

산남동 롯데리아 옆
귀금속 전문점

이중호 사도요한
박성관 엘리사벳 | 255-2533